

## 補助動詞“어 놓다”意義之研究

李京保\*

### 中文摘要

在以往的研究成果中，幾乎皆指出“어 놓다”之意義與“어 두다”相同，乃具有「維持」、「準備」之意，或是具有「完成」之意。本論文中，筆者在重新檢討以往的研究成果後指出，“어 놓다”與“어 두다”或完成式應具有著不同的意義。

“어 놓다”在型態上雖屬補助動詞，然而其所表達之意義，卻多半是其本動詞——“놓다”之意，亦即「位置移動變化」之意。同時，吾人亦可觀察到，源自「位置移動變化」所產生的意義擴張現象。此種意義擴張或抽象化，可大致分類為兩大主流。其一，抽象物被形容成仿如在空間中移動，表示出「移動變化」之意。另一則為，空間移動之概念被擴張為狀態之變化，表示出「變化產生」之意。

此外本論文亦主張，“어 놓다”之所以形成與“어 두다”不同之意義，乃是其本動詞——“놓다”之意義上的特徵，亦即暫時性所造成的影響。

關鍵詞：補助動詞、“어 놓다”、意義抽象化、本動詞

---

\* 國立高雄大學東亞語文學系助理教授

2012年5月10日到稿 2012年8月9日通過刊登

# A Study on the Meaning of Korean Auxiliary Verb “어 놓다”

Lee, Kyong-Bo \*

## Abstract

In the previous research, almost all of the results pointed out that the meaning of “어 놓다” and “어 두다” was the same. They mean to maintain, to prepare, or to finish. After reexamining the previous research results, the researcher concluded that the meaning of “어 놓다” and “어 두다” or the perfect was different in this study.

“어놓다” is an auxiliary verb. However, it expresses the meaning of its base verb “놓다”, which means “the change of location and mobility.” At the same time, the researcher observed the expanding meaning of “the change of location and mobility.” The meaning of expansion or abstract can be broadly categorized into two mainstreams. First, the abstract object is described as moving in the space, which shows the change of mobility. Second, the concept of the moving in the space can be expanded as the change of condition, which shows the state of change.

In addition, this paper indicated that the meaning of “어 놓다” differs from “어 두다” due to its base verb “놓다”. The characteristics of “놓다”, temporariness, affects its meaning.

Key words: Auxiliary verb, “어 놓다”, the meaning of abstract, base verb

---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Literature, National University of Kaohsiung

## 보조동사 “어 놓다”의 의미 연구

이 경보\*

### 초록

기존의 논고에서 “어 놓다”는, “어 두다”와 동일하게 “유지” “준비”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지적하거나, 또한 “완료”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여 왔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재검토하고, “어 놓다”는 “어 두다”나 완료형과는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어 놓다”에는 형태상으로는 보조동사이나 본동사 “놓다”의 의미 즉, “위치 이동 변화”를 나타내는 용례가 매우 많다. 그리고 그 “위치 이동 변화”에서 의미가 확장된다. 의미 확장·추상화에는 크게 두 갈래의 흐름이 있다. 하나는 추상물이 마치 공간 이동을 하는 것처럼 표현되는 것으로서 “이동 변화”를 나타낸다. 또 하나는 공간 이동 개념이 상태 변화의 개념에 확장되어 “변화 산출”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어 놓다”가 “어 두다”와 다른 의미를 형성하게 된 데에는 본동사 “놓다”가 나타내는 동작의 의미 특징의 하나인 순간적이라는 면이 “어 놓다”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주제어: 보조동사, “어 놓다”, 의미 추상화, 본동사

---

\* 국립고웅대학교 동아시아어문학과, 조교수

## 보조동사 “어 놓다”의 의미 연구

이 경보

### 1. 서론

한국어에는 보조동사가 많이 있는데, 보조동사의 의미 용법을 습득하는 것은 한국어 학습자에게 있어 결코 용의하지 않은 것 같다. “어 놓다”도 그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어 놓다”는 한국어 교수 학습 현장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문법 교재, 참고서에서 “어 두다”와 동일한 것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상 “어 놓다”가 “어 두다”로 바꿀 수 없는 문장들은 적지 않다.

(1) 자식 지금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놈이 아니지. 기왕 살려{놓은/ \*두는} 것,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일이야.

(사랑)

(2) 탁자에 신문이 널려 있어도 그냥 { \*내버려 놓는다/내버려 둔다 }.

같은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보조동사라면 상호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1)의 문장과 같이 “어 놓다”는 가능하나 “어 두다”는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있거나, 그 반대로 (2)와 같이 “어 두다”는 가능하나 “어 놓다”는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에서의 “어 놓다”의 문법 설명은 국어의 기존 연구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어 연구에서 보조동사 “어 놓다”는 “유지”라는 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또한, “대비(준비)”라는 의미도 지적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많은 논고에서 보조동사 “어 놓다”는 “어 두다”와 거의 동일하게 간주되어 그 둘의 의미 기능의 차이점에 대해 충분히 거론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1)-(2)와 같이 “어 놓다”와 “어 두다”가 상호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 기존의 논고에서 지적해 온 “어 놓다”의 의미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인 연구 분석에 입각하여 기존의 논고에서 지적되어 온 “어 놓다”의 의미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재검토하고, “어 놓다”의 의미 및 의미 확장 추상화를 인지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새로이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 2. 기존 연구의 문제점

이 장에서는 기존의 논고에서 지적되어 온 “어 놓다”의 의미에 대해

그 문제점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 2.1 “유지/보유/지속”이라는 견해에 대해

종래의 논고에서는 “어 놓다”의 의미를 “보유” (최현배 1994, 이주행 1976, 柳 相 1980, 고영근/남기심 1993), “지속” (이관규 1992), “완결된 동작의 결과 지속”(손세모돌 1996), “유지”(박선옥 2005)라고 해 왔다.<sup>1</sup> 이들은 각기 다른 용어를 쓰고는 있지만 같은 상 의미에는 다를 바 없다. 그렇다면, “유지”라고 하는 견해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보기로 하자.

### 2.1.1 유지·지속을 나타내거나 함의하고 있는 어휘

동사 중에는 유지의 뜻을 지닌 것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에 ‘두다’가 있다. ‘두다’는 “어 놓다”의 선행동사로 취할 수 없다.

(3)\*사진을 책상 위에 두어 놓다.

다음의 (4)의 ‘그냥’은 다의어인데, 여기서는 ‘원래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다’는 뜻으로 쓰여져 있다. 이러한 뜻의 ‘그냥’은 “어 놓다”와 어울리기 어렵다 하겠다.

(4)탁자에 신문이 널려 있어도 그냥 {\*내버려 놓는다/내버려 둔다}.

‘살리다’도 다의어로서, (5)에서는 ‘살아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다’는 뜻인데, 이것 역시 “어 놓다”와 어울리기 어렵다.<sup>2</sup>

(5)오늘은 일단 살려 {\*놓지만/두지만} 다음날 만나면 혼날 줄 알아  
(손세모돌 1996:176)

(3)-(5)의 문장은 “어 놓다”가 지속적인 의미를 나타내거나 지속적인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어휘하고는 어울리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 반면에,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 두다”는 이러한 지속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와 어울릴 수 있다.

### 2.1.2 “천천히” “차츰차츰” 과 같은 부사

“유지”라는 상 의미는 어떤 동작이 완료된 후의 단계를 나타내기에 일반적으로 “천천히” “차츰차츰”과 같은 부사와 어울리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런데 다음의 문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 놓다”는 그것들과 어울리고 있다. 그 반면에 “천천히” “차츰차츰”은 “어 두다”와 어울리지 않는다.

(6)시작하는 흐뭇한 광경을 나는 베란다 유리창을 통해 바라보면서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사랑)

<sup>1</sup> 최현배(1994), 이주행(1976), 柳相(1980)은 박선옥(2005:159)을 재인용.

<sup>2</sup>(5)의 ‘살리다’은 (1)과 다른 뜻을 나타낸다. (1)은 ‘죽어가는 상태에서 살 수 있는 상태로 구제했다’는 뜻으로서 “지속”의 뜻을 함의하고 있지 않다.

(7)바다가 차츰차츰 나를 바꾸어 놓고 있어. (바다)

### 2.1.3 진행의 “고 있다” “는 N” 형태

2.1.2 에서 언급했듯이 “유지”는 한 동작이 완료된 후의 단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유지”를 나타내는 것은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형태를 취할 수 없다. 그런데 앞에서 본 (7)에서는 “고 있다”를 어말 어미로, (8)-(9)에서는 “는 N”의 관형형을 취하고 있다.

(8)네, 아닙니다, 식으로 이루어진 짧은 통화를 마친 후 다시 수화기를 내려놓는 남자의 모습을 나 또한 얼떨떨한 기분으로 바라다보았다. (기차)

(9)따뜻한 음식 덕분인가. 운이 빈 죽 그릇을 들고 나가 씻어 엮어놓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평화를 느꼈다. (기차)

### 2.1.4 “어 있다”의 후행 어미

“어 놓다”의 용례 중에는 “상태 지속”을 나타내는 “어 있다”를 후행 어미로 취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어 놓다”가 “지속”의 “어 있다”와는 다른 의미 기능을 나타낸다는 것을 뒷받침한다.<sup>3</sup>

(10)크고 작은 고동색 향아리들은 뚜껑이 닫힌 채 어둠 속에 그대로 내놓여 있었다. (기차)

2.1.1-2.1.4 에서 본 용례들은 유지(지속)이라는 의미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해 주는 것들이다. 실은 기존의 논고에서도 “어 놓다”와 “어 두다”는 기본적으로는 동일하나 부분적으로는 차이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손세모들(1996)은 “어 놓다”와 “어 두다”에서는 일부 선행동사와의 결합 차이라든지 부사어와의 어울림에 차이를 보이지만 이런 것은 근본적인 의미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2.1.1-2.1.4 에서 본 두 보조동사의 차이점은 그들의 의미 기능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의미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 2.2 “완료” 라는 견해에 대해

이기동(1979), 李美淑(2002)은 “어 놓다”는 “완료”라는 상 의미를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양인중(2007:206)은 동작의 완료 혹은 완료된 상태의 지속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들은 “어 놓다”가 “어 두다”와

<sup>3</sup> 주어와 N(에)가 전체와 부분의 관계인 경우에는 “고 있다”를 취해서 “지속”을 나타내기도 한다.

• 늑다시피 앉아서 창 바깥을 내다보고 있다. 더울 텐데 테오를 문릐에 올려놓고 있다. (기차)

다른 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견해는 예를 들면 (11)의 ‘나무를 잘라 놓았다’라고 하면 ‘자르다’는 행위가 완료된 것이며, 완료 표시 “었”을 쓴 ‘잘랐다’로 교체해도 문장의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11)순식간에 두 그루 나무를 그렇게 잘라 놓았다. (제주)

이기동(1979)은 “완료”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며 같은 논고에서 “상태 변화”라는 용어도 쓰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의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점에 대해서는 5.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완료”라는 견해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보기로 하자.

### 2.2.1 미래형

“완료”를 나타내는 “었”은 미래형과 어울릴 수 없다. 그런데 수집한 용례 중에는 “어 놓다”가 미래형을 나타내는 “겠”과 “을 N”의 관형형과 어울리는 것이 있다. 이는 “어 놓다”가 완료의 “었”과는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12)대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마리 양 중 한 마리를 내놓겠다고 하는, 남루하고 추위에 떠는 양치기를 만난다는 것이 여간해서 일어날 일이겠는가. (함께)

(13)뭇 한참 계산해 보더니만 저쪽에서 오천 정도 내놓을 의향을 내비치면 못 이기는 체 합의를 보는 게 좋을 것(사랑)

### 2.2.2 “-기 시작하다”

손세모들(1996:173)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어 놓다”는 “-기 시작하다”와도 어울린다. “-기 시작하다”는 기동상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완료”를 나타내는 형태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겠다.

(14)그 후부터는 내가 예상했던 대로 헤린은 장과 자기와의 관계를 솔직히 털어놓기 시작했다. (바다)

### 2.2.3 “(으)며”

“(으)며”는 동작이 동시에 진행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이것 또한 “완료”를 나타내는 말과는 어울리지 못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15)-(16)은 “어 놓다”가 “(으)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15)성일은 멈추었던 걸음을 다시 떼어놓으며 말했다. (사랑)

(16)인옥은 꺼낸 배낭을 탁자 위에 엮어놓으며 미란이 것이라고 했다. (기차)

### 2.2.4 “아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아서”절에는 원칙상 완료형이 올 수 없다. 따라서 “어 놓다”가 “완료”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어 놓다”는 “아서”를

취하지 못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17)너무나 잘 부착시켜놓아서 떼어내는 데 애를 먹었다고. (기차)

### 2.3 “대비(준비)” 라는 견해에 대해

李美淑 (2002), 박선옥(2005), 許宰碩(2007,2009)등은 “어 놓다”는 “대비/준비”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했다. 이러한 논고들은 “어 놓다”가 “어 두다”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견해들이다.

李美淑 (2002) 은 일한 대조 연구에서 일본어의 “te-oku (ておく)”에는 한국어의 “어 두다”와 “어 놓다”가 대응한다고 하며, “어 놓다” 는 “대비”와 “완료”를 나타낸다고 했다. 許宰碩(2007)은 “어 놓다”는 기본적으로 “어 두다”와 동일하게 “대비/준비”를 나타내는데, “어 두다”와 다른 점으로서 [-의도적]인 경우에도 쓰인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대비”의 용법과 [-의도적]인 용법은 서로 어울리지 않기에, 許宰碩의 견해에는 모순점이 있다고 하겠다.

“대비”라고 하는 견해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보기로 하자.

#### 2.3.1 부정적인 뜻 혹은 부정적인 뜻으로 쓰인 선행동사

“대비”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 화자가 이상적이거나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혹은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리라고 생각되는 행위를 미리 행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부정적인 뜻을 나타내는 동사를 선행동사로 취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런데, 다음의 문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 놓다”의 선행동사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19)에서는 경찰이 어떤 목적을 갖고 행한 행위이겠지만, 화자는 그 행위를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

(18)맞아 돼질 개쌍놈아. 니가 내 인생 요 모양 요 꼴로 망쳐놓고 온전히 살아남을 줄 알았더냐, 어림도 없다, 이놈아. (사랑)

(19)아인데, 충격이 오죽 했겠어요. 경찰이 찾아와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헤쳐 놓았더군요. (사랑)

(20)혈압약 먹지 마시우. 내 말이 틀림없어라우. 액맥이한다고 누가 그 짓거리를 헤놓은 것이라니께요. 눈을 감은 채 이마를 잔뜩 찌푸린 표정으로 드러누워 있는 남편을(봄날)

#### 2.3.2 “고 말다” “어 버리다”의 후행 어미

대비를 나타내는 “어 두다”는 기본적으로 화자의 기대나 생각에 어긋남을 나타내는 “어 버리다”나 “고 말다”를 후행 어미로 취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나 “어 놓다”는 다음의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고 말다” “어 버리다”를 후행 어미로도 취할 수 있다.



(21) 흥, 어쩐지 처음부터 좀 멍하게 생겨먹었다 싶었더니만 기어이 일을 저질러 놓고 말았군. (사랑)

(22) 말없이 냉찜질을 계속하고 있던 강욱이 문득 비닐봉지를 방바닥에 내려 놓아 버린다. 강욱의 표정은 새벽에 일어나 앉아 구차스럽게 냉찜질이나 하고 있는 (사랑)

### 2.3.3 “어 두다” 의 후행 어미

“어 놓다”는 “어 두다”를 후행 어미로 취할 수도 있다. 다음의 (23)에서는 “어 놓다”의 뒤에 “어 두다”를 후행 어미로 써서 대비의 행위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어 놓다”가 “대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

(23) 누군가 우울한 일로 운을 찾으면 접어서 챙겨놓아둔 재미난 얘기가 썩어진 신문 쪼가리며, 꼬깃꼬깃한 메모지들을 꺼내와서 눈앞에 들이밀어주는 (기차)

위의 2.3.1-2.3.3 에서 본 문장들은 기존의 논고에서 지적되어 온 “대비”라는 의미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논고에서 “어 놓다”의 뜻으로 지적되어 온 “유지” “완료” “대비”라고 하는 견해에는 재검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어 놓다”의 의미가 기존의 논고와 달리 새로이 지적되어야 하고, 동시에 기존의 연구에서 왜 그러한 견해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더불어 설명할 필요가 있다.

## 3. 보조동사 “어 놓다”의 의미

### 3.1 위치 이동 변화 (232 개, 40.3%)<sup>4</sup>

본동사 “놓다”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물을 어떤 곳에 위치시킴’ 즉, “着地”라는 의미를 기본 의미로 가지고 있다.

(24) 책상 위에 책을 놓다.

(24)에서 보는 본동사 “놓다”의 “착지”의 의미가 다음의 (25)-(27)의 “어 놓다”에도 남아 있다.

(25) 남편은 벽난로 옆에 쪼그리고 앉아 불길 위에 빨감을 몇 개 얹어놓으며 등을 돌린 채 물었다. (바다)

(26) 사진들도 다 그대로 둔 채 소포 상자를 책상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기차)

<sup>4</sup> 본고의 고찰에 쓰인 용례는 “21세기 세종계획”의 말뭉치에서 검색한 전자 파일이다. <[http://sejong.or.kr/gopage.php?svc=list\\_uarea.userarea](http://sejong.or.kr/gopage.php?svc=list_uarea.userarea)> 작품은 11 작품(작품명은 본고의 마지막을 참조)이며, 추출된 “어 놓다”의 용례수는 575 개이다.

(27) 언니는 벌써 30 여 년 동안 어머니가 쓰던 발재봉틀<sup>을</sup> 거실 코너<sup>에</sup> 내놓고 콘솔로 이용하면 되겠다고 한다. (기차)

(25)-(27)에서는 ‘N 에 N 을 V 어 놓다’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N 에’가 “놓다”의 착지점이기도 하며, 또한 ‘N 을’은 “놓다”의 객체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어 놓다”는 위치 공간의 이동을 나타낸다. 즉, (25)-(27)은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다.

(25) ‘ 남편은 불길 위<sup>에</sup> 빨감<sup>을</sup> 몇 개 놓으며 등을 돌린 채 물었다.

(26) ‘ 소포 상자<sup>를</sup> 책장 선반 위<sup>에</sup> 놓았다.

(27) ‘ 언니는 어머니가 쓰던 발재봉틀<sup>을</sup> 거실 코너<sup>에</sup> 놓고 콘솔로 이용하면 되겠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어 놓다”는 본동사의 基本義인 “着地”라는 공간 이동이 농후하게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어 놓다”의 의미를 본고에서는 “위치 이동 변화”라 한다. 여기에서의 “어 놓다”는 도착점에 중점을 두는 위치 이동을 나타낸다.<sup>5</sup> 이기동(1979:54)은 본동사 “놓다”는 도착점에 초점이 주어지는 동사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이 부류의 “어 놓다”는 본동사의 의미 특징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고 하겠다.

이 부류에 나타나는 선행동사는 다음과 같다.

(28) 걸다, 걸치다, 깔다, 꽃다, 나열하다, 남기다, 내다, 내리다, 널다, 놓다, 달다, 매달다, 묶다, 밀다, 바르다, 버리다, 붙이다, 뿌리다, 세우다, 심다, 쌓다, 올리다, 진열하다, 펴다, 펼치다, 풀다...

(28)의 선행동사들은 구상적인 물체의 ‘부착’ ‘삽입’ 등의 위치 이동의 모양을 나타내는 동사들이다. 이러한 (28)의 동사들이 나타내는 동작은 이동을 동반하기 때문에 “어 놓다”를 취하지 않아도 위치 변화를 나타낼 수는 있으나, “어 놓다”가 없으면 위치 변화를 나타내는 데 불안정한 경우가 적지 않다.<sup>6</sup> 예를 들면 ‘내려 놓다’는 출현도수가 높은 것인데 이것은 ‘내리다’만을 쓰였을 때는 다소 불안정한 것 같다. 즉, ‘-에’와 같이 쓰일 때는 보통 ‘내리다’보다 ‘내려놓다’가 쓰여져, ‘내려놓다’

<sup>5</sup> 이 부류에 포함시킨 동사 중에는 ‘옮기다, 들이다, 꺼내다’가 있다. 이 동사들은 (28)의 동사들과 비교하면 출발점도 의식하는 이동이라고 볼 수 있는 데 “어 놓다”의 문장에 나타난 예들은 문장 중에 출발점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sup>6</sup> 국어의 위치 이동 동사만으로는 일정한 장소에 위치함을 나타내는 데 다소 불안정하고, 이동의 모양이나 과정을 나타내기 쉽다고 하겠다. 그래서 위치 이동 동사가 보조동사 “어 놓다”와 결합함으로써 한 곳에 着地함을 확실히 나타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선행 동사와 “어 놓다”의 결합이 밀접하여 띄어 쓰기가 거의 행해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어 놓다”에서는 전체 용례수(575 개)의 66.9%나 띄어 쓰기가 행해지고 있지 않다. 이는 사용 빈도수가 가장 높은 이 부류의 “어 놓다”가 선행 동사와 후행 동사가 밀접히 결합되어 붙여 쓰기가 습관화됨에 따라 다른 부류의 “어 놓다”까지 띄어 쓰기가 행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체에서 한 곳에 위치함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그 밖에 ‘내놓다’ ‘밀어 놓다’가 들 수 있다.

(29)나는 간이 의자에 앉은 채로 팔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기차)

(30)내 입술을 가만히 갖다 대봤다. 따뜻한 감촉. 수건을 접어 저만큼 밀어놓고 나도 그 옆에 누웠다. (기차)

“어 놓다”와 어울려진 위치 이동 모양 동사는 이동의 모양을 나타내고, “놓다”는 위치 이동 변화를 나타낸다. 그것은 다음 두 문장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b가 불안정한 것은 ‘옮겨 놓다’가 위치 이동 변화를 나타내는데 뒤에 이동의 중단을 나타내는 내용이 왔기 때문이다.

(31)a 마당에 있는 돌을 현관으로 옮기다가 그만 두었다.

b?마당에 있는 돌을 현관으로 옮겨 놓다가 그만 두었다.

본고의 수집한 용례에 의하면 “위치 이동 변화”는 전체의 수(575 개)중 232 개나 있어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어 놓다”의 의미 확장 추상도가 낮고, 본동사 “놓다”의 의미 용법이 많이 남아 있음을 알려 준다.

### 3.2 의미 확장

#### 3.2.1 공간 이동 개념에 의한 의미 확장

수집한 용례에 따르면, “어 놓다”의 약 40%가 “착지”라는 공간 이동을 나타내는데, 그러한 “착지”라는 공간 이동 개념에서 “어 놓다”의 의미가 확장되어 추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래에서 보는 3.2.1.1-3.2.1.4 에서의 “어 놓다”는 물체가 아닌 대상 혹은 추상적인 대상을 ‘한 물체를 한 곳에 위치시키다’라는 공간 이동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sup>7</sup> 아래에서 보는 용례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치 이동 변화” (3.1 의 (28))를 나타내는 선행동사가 쓰여진 경우가 많다.

##### 3.2.1.1 사람의 이동 변화 (72 개, 12.5%)

(32)더울 텐데 테오[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다. (기차)

(33)나는 내 다리에 얹혀진 윤의 다리[를] 가만히 침대[에] 내려놓았다.  
(기차)

(32)는 사람의 이동을, (33)은 사람의 인체의 한 부위의 이동을 나타내고 있다. 원래 사람은 의지를 지니고 있는 주체이나, 여기서는

<sup>7</sup> 이러한 현상은 인지언어학에서는 “은유적 개념화”라고 하는데, “은유적 개념화”는 추상적인 개념을 더 구체적인 개념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임혜원 2004, 임지룡 2008 참조)

마치 물체를 한 곳에 위치시킨다고 표현되고 있다. 다음의 (34)는 단순히 사람의 공간적인 이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한 단체와 관련을 맺는다는 의미로 쓰여진 것이다. 여기서도 ‘영화계’를 물리적인 공간으로 여기고 사람을 그 곳에 위치 이동하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다.

(34)나는 지금 영화의 각본을 쓰고 영화계<sup>에</sup> 발<sup>을</sup> 들여놓았다. (결혼)

“사람의 이동 변화”의 부류는 이동 대상이 구상물과 추상물 둘 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와 관련하여 이동 동작도 공간적인 이동과 추상적인 이동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 3.2.1.2 소유물/소유권의 이동(19 개, 3.3%)

(35)잠자는 사이에도 늘 조금씩 어딘가가 무너지고 있던 집<sup>을</sup> 우리<sup>에게</sup> 남<sup>겨</sup>놓고 가는 일은 (기차)

(35)에서는 ‘집’이라는 부동산은 공간적인 이동이 불가능한데, 집이라는 소유물이 마치 공간적인 이동을 하는 것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 이 부류에는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천오백’ ‘창대와 창촉’ 같은 구상적인 물체인 경우도 있으나, 여기서서는 단순히 공간적인 이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라는 추상적인 것이 더불어 같이 이동한다.

(36)장례비 외에 순수한 피해보상금으로 이천오백<sup>을</sup> 내<sup>놓</sup>겠다면서 합의를 보자는 거예요. (사랑)

(37)그들은 창대와 창촉<sup>을</sup> 남<sup>겨</sup> 놓고 갔다. 바구니와 배낭은 그대로 있다. (함께)

다음의 문장은 이동 대상이 환자라서 3.2.1.1 의 사람의 이동으로 취할 수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병원의 환자이기에 소유물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

(38)지금 이 시각까지 청주를 떠나지 못했다면 그곳 병원에서 환자<sup>를</sup> 내<sup>놓</sup>지 않았다는 뜻이다. (사랑)

### 3.2.1.3 발화 내용의 이동(44 개, 7.6%)

(39)그 대신 그곳에 나가 있는 우리 기자<sup>한테</sup> 지시<sup>를</sup> 내<sup>려</sup>놓을 테니 선생님께서는 어디 나가지 마시고 (사랑)

(40)그제야 나는 윤재홍이 나를 만나 그 같은 비밀<sup>을</sup> 털<sup>어</sup>놓게 된 연유를 확연히 깨달았다. (사랑)

(39)(40)에서는 말하는 행위의 ‘지시, 비밀’이 한 곳에 위치시킨다는 것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 여기에서 착지점은 사람이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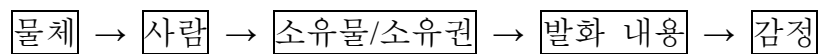
### 3.2.1.4 감정 이동 (7 개, 1.2%)

감정도 공간 이동처럼 표현되고 있다.

(41)노동자 계급에게는 환멸과 반항심만을 남겨놓았을 뿐이었다.  
(함께)

(42)작품 속에 쏟아 놓으신 성실한 마음이 아까우시고 귀중했을  
것입니다. (불안)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간 이동 개념화에 의해 표현되는 “어 놓다”들이 다양한데 그들의 의미 확장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 3.2.2 공간 이동 개념 → 상태 변화 산출 (155 개, 26.9%)

이 부류는 “위치 이동 변화” 다음으로 많은 부류인데, 다음의 (43)-(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류에서는 착지점을 나타내는 ‘N 에’가 문장 중에 나타나 있지 않다.

(43)순식간에 두 그루 나무를 그렇게 잘라 놓았다. (제주)

(44)여름날의 얼마간을 우리 가족은 집을 비워놓고 계곡의 평평한  
자리에 텐트를 치고 살았다. (기차)

(45)우리 두 여성은 양말이랑 손수건 같은 것을 빨아 놓고 자리에  
들었다. (불안)

(43)-(45)는 (43)’-(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 놓다”가 없이도 문장이 성립한다. 그 반면에 선행동사를 없애고 “어 놓다”로 바뀌면 문장의 뜻이 (43)’처럼 달라져 버리거나, (44)’처럼 성립하지 않는다.

(43)’ 순식간에 두 그루 나무를 그렇게 { a.잘랐다 / b.놓았다 }.

(44)’ 여름날의 얼마간을 우리 가족은 집을 { a.비우고/ \*b.놓고 }

계곡의 평평한 자리에 텐트를 치고 살았다.

(43)’-(44)’ b 는 이 부류의 “어 놓다”의 “놓다”가 자립성이 결여되어 어휘적이기보다 문법적인 성격이 강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놓다”의 의미 추상화가 이루어져 있다 하겠다.

(43)’-(44)’a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류는 “어 놓다”를 없애고 선행동사만 쓰여도 문장이 성립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 놓다”가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일까?

(46)a 전등을 켰다. 그러나 켜지지 않았다.

\*b 전등을 켜 놓았다. 그러나 켜지지 않았다.

(46) b 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어 놓다”는 ‘전등이 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켜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데 그 뒤에 부정의 내용이 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어 놓다”는 선행동사가 나타내는 상태 변화를 강조하여 그 변화 산출을 나타내고 있다.

이 부류의 선행동사는 다음과 같이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들이다.

(47) 꾸미다, 살리다, 누르다, 켜다, 잠그다, 빨다, 열다, 묶다, 펼치다, 뒤바꿔다, 벗다, 닫다, 망치다, 비우다, 세우다, 접다, 틀다...

인지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물체의 상태 변화는 물체가 공간에서 이동하는 것과 같이 인지한다고 하겠다.<sup>8</sup> 이기동(1979)은 장소와 장소 이동의 개념은 상태와 상태 변화의 개념에 확대되어 쓰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 변화 산출은 3.1 에서 본 “위치 이동 변화”에서 확장된 의미라 할 수 있겠다.

다음의 (48)-(49)는 선행동사가 ‘생산(만듦)’을 나타내는 동사인데, “생산”은 無에서 有를 나타내며, 이것 또한 ‘상태 변화’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48) 그때면 저녁밥을 다 지어놓고 엄마가 밥 먹고 자라고 깨우잖아.  
(기차)

(49) 사인펜을 들고 점선으로 이름을 쓴 뒤 조각칼로 점선을 따라 이름을 새겨놓았다. (기차)

### 3.2.3 상태 변화 산출의 의미 확장

상태 변화 산출이라는 개념은 구상적인 물체를 바탕으로 감정/사고, 사건에 확장된다.

#### 3.2.3.1 감정/사고의 변화 산출 (19 개, 3.3%)

(50)a 내가 알 수 없는 걱정이 미란의 마음을 뒤집어놓고 있는 모양이었다. (기차)

b 이해가 감직한 일이지만, 그러한 행위 자체가 바로 왜식 사고를 그대로 뒤집어놓은 것이다. (사상)

c 이번에 만드는 영화는 베를린 영화제에 출품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워놓고 촬영에 들어간다. (사랑)

a 의 사람의 ‘마음’(감정), b 의 ‘사고’가 물체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 c 는 ‘목표’라는 추상물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표현되고 있다.

(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류에서 쓰여지는 선행동사는 3.2.2 에서 본 (47)의 동사들이 많이 쓰여지고 있다.

<sup>8</sup> 임혜원(200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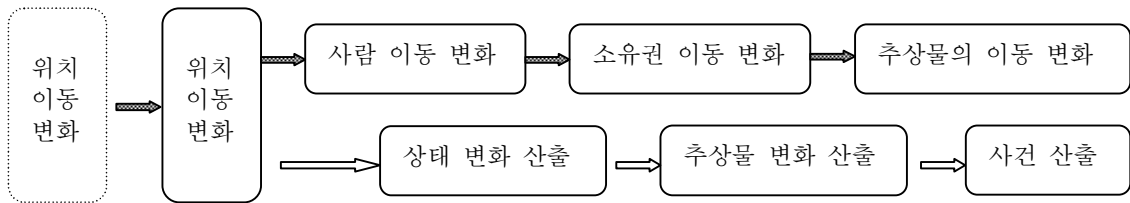
3.2.3.2 사건 산출<sup>9</sup> (20 개, 3.4%)

(51)미안한 짓 해놓고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해 더 화를 내버리고  
 마는 사이. (기차)

無에서 有로 물체를 만들어 내듯이 행동의 산출을 나타내고 있다.

3.3 “어 놓다”의 의미 확장 프로세스

“어 놓다”가 본동사의 의미를 그대로 물려받아 구상적인 물체를 한 곳에 위치시킨다는 뜻으로 쓰여진 용례수가 전체수의 약 40%나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착지”라는 공간 이동을 바탕으로 의미가 확대되어 추상화된다. 의미 확장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추상물이 공간 이동하는 것처럼 표현되는 것과, 또 하나는 물체의 상태 변화가 공간 이동 개념에서 의미 추상화가 이루어진 후 추상물이 상태 변화하는 것처럼 쓰여진 것이다. 3.1-3.2 에서 본 “어 놓다”의 의미 확장, 추상화의 프로세스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되지 않을까 싶다.



<“어 놓다”의 의미 확장 프로세스><sup>10</sup>

동사 “놓다”가 물체를 위치시킨다는 基本義에서 이렇게 의미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이동은 변화 속성이 있는 여러 가지 개념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sup>11</sup>

4. “어 놓다”와 “어 두다”의 의미 형성의 차이

기존의 많은 논고에서는 보조동사 “어 놓다”의 뜻은 “어 두다”와 거의 동일하게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2.에서 본 바와 같이 “어 놓다”와 “어 두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다른 양상을 보인다.

보조동사의 의미는 대체로 그의 前身인 본동사에서 변화, 발달한 것이다. 그러므로 보조동사가 나타내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그 본동사의 의미와 무관하지 않으며, 보조동사에 따라서는 본동사의 의미와 유연성이 강한 것도 있다.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어 놓다”와 “어

<sup>9</sup> 사건은 사태, 행동등을 포함한 용어로 쓴다.  
<sup>10</sup> 실선은 “어 놓다”, 점선은 “놓다”을 나타내고 있다.  
<sup>11</sup> 임혜원(2004) 참조.

두다”는 각각 “놓다” “두다”의 의미와 관련이 깊다고 하겠다. 따라서 “어 놓다”가 “어 두다”와 다른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데에는 그들의 본동사의 의미에 기인하지 않나 생각한다.

(52)a[장소]에 [물체]를 놓다.

b[장소]에 [물체]를 두다.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놓다”와 “두다”의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하기 때문에 통어적인 구조에서는 양자의 차이점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놓다”와 “두다”는 그들이 나타내는 동작의 長短에 있어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sup>12</sup> “놓다”가 나타내는 “着地”는 순간적인 동작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놓다”가 기본적으로 진행을 나타내는 “고 있다”를 취하기 어려운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sup>13</sup>

(53)\*책상 위에 책을 놓고 있다.

그 반면에 “두다”가 나타내는 동작은 비교적 긴 시간을 느끼게 한다. ‘오랫동안’과 같은 지속성의 의미를 가진 부사와의 共起 여부를 테스트해 보면 두 동사의 차이점을 엿볼 수 있다. (54)에서 ‘오랫동안’은 순간적 동작인 “놓다”와는 어울리기 어려우나, “두다”와는 어울릴 수 있다.

(54)그는 미리 준비한 포도주 한 병을 책상 위에 오랫동안 {두었다/  
\*놓았다}.

이처럼 두 동사는 그 동작의 시간 長短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의미 특성은 보조동사 “어 놓다”와 “어 두다”에서도 엿볼 수가 있다. 따라서, 예를 들면 (2)의 ‘그냥’은 원래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인데, 이러한 어휘는 “어 놓다”와는 어울리기 어려우나, “어 두다”와는 어울린다.

(2)탁자에 신문이 널려 있어도 그냥 {\*내버려 놓는다/내버려 둔다}.

다음의 ‘살리다’는 ‘살아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다’는 뜻으로 쓰여 있는데, “어 놓다”와는 어울리기 어려운 반면에 “어 두다”와는 어울린다.

(5)오늘은 일단 살려 {두지만/\*놓지만} 다음날 만나면 혼날 줄 알아  
(손세모돌 1996:176)

<sup>12</sup> 박선옥(2005)은 ‘어 놓다’는 ‘어 두다’와 동일한 상의 의미(유지)와 양태의 의미(대비)를 지니고 있다고 하고는, 그 쓰임에 있어 지속의 시간의 장단에 있어 양자의 차이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필자는 지속의 시간의 장단이 아니라 동작의 시간의 장단이라고 생각한다.

<sup>13</sup> 책이 한 권이 아니라 두 권 이상일 경우에는 “고 있다” 표현이 가능하다.

보조동사 “어 놓다”는 본동사 “놓다”와 달리 “고 있다”를 후행어미로 취할 수 있는데, 이는 “어 놓고 있다”(예를 들면,)가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지 않고, 변화의 과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놓다”와 “두다”는 둘 다 물체를 한 곳에 위치시킴을 나타내는데, 그 공간 이동이라는 동작을 “놓다”는 순간적인 것으로, “두다”는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낸다. 그러한 의미 특징은 보조동사 “어 놓다”와 “어 두다”에 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2.1 에서 보았듯이 “어 놓다”가 “유지”의 의미를 나타내기 어려운 반면에 “어 두다”는 “유지”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또한 “유지”라는 상 의미는 단순한 상태의 존재와는 달리 주체성을 필요로 한다.<sup>14</sup> 그래서 주체적으로 행해지는 “유지”는 “대비(준비)”라는 의미에 확장된다.

기존의 논고에서는 본동사 ‘놓다’의 基本意를 “어느 한 위치에 유지시킴”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착지”가 완료된 후에 필연적으로 객체가 그 곳에 존재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사전을 책상 위에 놓다’라는 동작이 완료된 후에는 필연적으로 ‘사전’이 책상 위에 있는 상태가 지속하기 마련이다. 그것은 ‘놓다’가 客體의 變化를 나타내는 동작의 동사임에 기인한다. 다시 말하면 客體 變化 동사라면 “놓다”가 아니라도, 동작 완료 후에 이러한 필연적인 변화의 상태 지속이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놓다”가 결코 직접적으로 “유지”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 5. 완료형과 “어 놓다”의 비교

기존의 연구(이미숙 2002, 양인중 2007)에서는 “어 놓다”는 “완료”라는 상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다. 여기에서는 “어 놓다”를 완료형과 비교하면서 “어 놓다”의 의미를 다시금 정리하고자 한다. 이기동(1979)은 “완료”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며 같은 논고에서 “상태 변화”라는 용어도 쓰고 있다.

완료와 “어 놓다”가 나타내는 의미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46)a 전등을 켰다. 그러나 켜지지 않았다.

\*b 전등을 켜 놓았다. 그러나 켜지지 않았다.

(55)a 나는 논문 주제를 생각했다. 그러나 떠오르지 않았다.

\*b 나는 논문 주제를 생각해 놓았다. 그러나 떠오르지 않았다.

(46)(55)에서 a와 b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b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어 놓다”는 변화 산출을 나타내는데에 부정의 내용의 문장이 왔기 때문이다. (46) b 에서 ‘전등을 켜 놓았다’는 전등을 켜 상태가

<sup>14</sup> 주체성은 ‘의지성’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동작에 대한 동작주체의 자율적인 關與이다. (森山 1988)

산출되었다는 의미, (55) b 의 ‘논문 주제를 생각해 놓았다’는 논문 주제를 결정했다는 의미까지 포함된 것이다. 그 반면에 a 는 ‘전등을 키다’ ‘논문 주제를 생각하다’라는 동작의 실현을 나타내지만 그 동작이 완료 후에 나타나는 변화까지는 함의하고 있지 않는다.

상태 변화 산출을 나타내는 “어 놓다”는 (6)-(7)과 같이 “차츰차츰” “천천히”와 같은 수식어와 어울리거나, (7)과 같이 진행을 나타내는 “고 있다”를 어말어미로 취해서 “변화의 과정”을 나타낼 수도 있다. 이는 “어 놓다”가 완료형과는 다른 의미 기능을 나타낸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겠다.

## 6. 결론

기존의 연구에서는 “어 놓다”의 의미를 “어 두다”와 동일하게 “유지” “대비”를 나타낸다고 하거나, “완료”를 나타낸다는 견해가 대부분이었다. 본고에서는 “어 놓다”는 “어 두다”나 완료형과는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다. “어 놓다”에는 형식적으로는 보조동사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본동사 “놓다”의 의미를 그대로 물려받아 “위치 이동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약 40%나 있다. 그리고 “위치 이동 변화”라는 공간 이동의 개념을 바탕으로 의미가 확대되어 추상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의미 확장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추상물이 공간 이동하는 것처럼 표현되는 것과, 또 하나는 공간 이동 개념에서 물체의 상태 변화라는 의미로 확대 추상화가 이루어져서 추상물이 물체가 상태 변화하는 것처럼 쓰여진 것이다.

또한, “어 놓다”가 “어 두다”와는 다른 의미를 형성하는 데에는 본동사 “놓다”의 순간적인 동작이라는 의미 특성이 “어 놓다”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는 “어 놓다”를 중심으로 분석하며 “어 두다”와의 차이점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한국어 교수·학습의 현장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두 보조동사가 어떠한 문맥이나 상황에서 쓰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楊人從。《韓語語法 虛辭篇》。台北：明文書局股份有限公司，2007。
- Lakoff, G. & M. Johnson,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渡部昇一 楠瀬淳三 下谷和幸訳、『レトリックと人生』大修館書店、1986。)
- 李美淑、「日本語の補助動詞－「～ておく」の場合」『国文学解釈と鑑賞』

7月号、p.141-148、至文堂、2002。

許宰碩、「日本語の「しておく」について—韓国語の「hae nohda/duda」  
との対照の観点から—」『筑波日本語研究』12、p.26-43、筑波大学人  
文社会科学研究科、2007。

許宰碩、「日本語の「してある」と「しておく」について—韓国語の「해  
놓다」「해 두다」との対照の観点から—」『日本学報』81、p.87-99、韓  
国日本学会、2009。

関由眞、「補助動詞[てみる]の意味的共通基盤をめぐって」『日語日文學研  
究』73、p.237-260、韓國日語日文學會、2010。

初山洋介、『認知意味論のしくみ』研究社、2002。

森山卓郎、『日本語動詞述語文の研究』明治書院、1988。

油谷辛利、「「-어 놓다」と「-어 두다」の意味分析」『朝鮮学報』91、  
p.1-14、朝鮮学会、1979。

고영근/남기심, 『표준국어 문법론 개정판』, 탑출판사, 1993.

김기혁, 「보조동사의 문법범주」『국어문법의 탐구』Ⅲ, 태학사, 1996.

박선옥, 『국어 보조동사의 통사와 의미 연구』 도서출판역락, 2005.

손세모들, 『국어 보조동사 연구』 한국문화사, 1996.

이기동, 「조동사 ‘놓다’의 의미연구」, 『한글』163, 한글학회, 1979.

이관규, 『국어 대등구성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1992.

이익섭, 『한국어 문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5.

李美淑, 「한국어의「~어 놓다」「~어 두다」와 일본어의「~してお  
く」대조연구」, 『日語日文學研究』35, 韓國日語日文學會, 1999.

임지룡,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2008.

임혜원, 『공간 개념의 은유적 확장』 한국문화사, 2004.

임호빈 · 홍경표 · 장숙인 공저, 『신개정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7.

호광수, 『국어 보조동사 구성 연구』 도서출판역락, 2003.

### 용례 출전

결혼과 성(결혼)/ 기다리는 불안(불안)/ 기차는 7시에 떠나네(기차)/ 봄날  
1(봄날)/ 숨은 사랑(사랑)/ 슬픈 시인의 바다(바다)/ 연필을 잡으면 그리고  
싶어요(연필)/ 제주도 이야기 1(제주)/ 차 한 잔의 사상(사상)/ 한국 문학의  
위상(위상)/ 함께 걷는 이 길은(함께)